2008학년도 5월 고3 경기도학업성취도평가 문제지

언어 영역

제 1 교시 | 성명 | 수험번호 | 3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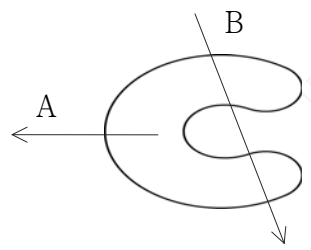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과 1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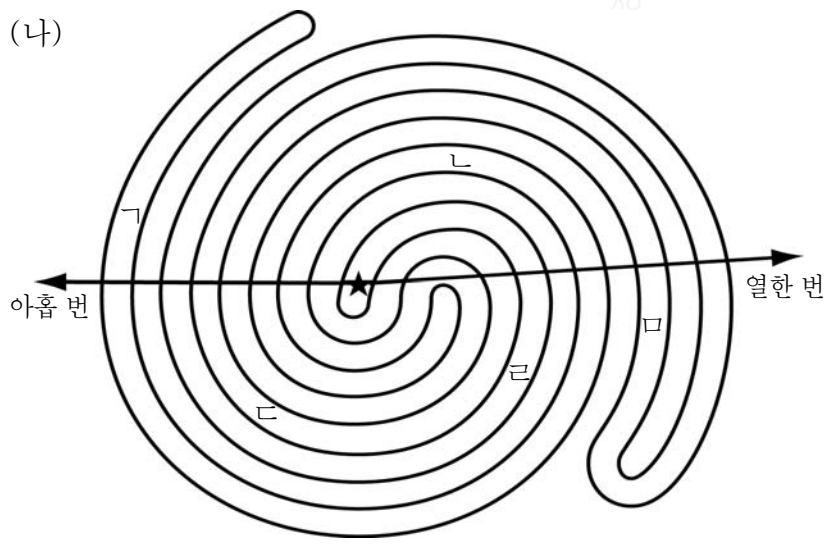
1. (물음) 대화의 마지막에 이어질 '누나'의 말로 적절한 것은?
① 성공하려면 주관이 뚜렷해야 한다는 거네.
②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거네.
③ 정직한 사람만이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네.
④ 시야를 넓게 갖고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거네.
⑤ 바른 품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네.

2. (물음) 발표자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알맞은 것은?

(가)



(나)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3. (물음) 학생들이 찾아야 할 '이런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잡지사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 연간 구독료보다 권당 구독료를 강조한다.
② 사전에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장기기증자로 인정되는 나라에서는 장기기증자가 적다.
③ 뷔페식당에 갔을 때 배가 부른데도 이미 지불한 돈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음식을 계속 먹는다.
④ '현금 결제 시 요금 천 원 할인'보다 '신용카드 결제 시 요금 천 원 추가'라는 광고가 현금 구매를 더 촉진시킨다.
⑤ 동메달을 딴 선수는 입상권에 들어서 안도감을 느끼는 반면 은메달을 딴 선수는 금메달을 따지 못해 아쉬움을 느낀다.

〔4 ~ 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이 대담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점]
① 웃음의 사회적 기능
② 웃음을 유발하는 기관
③ 웃음보의 크기와 역할
④ 웃음의 질병 치료 기능
⑤ 인간과 동물의 웃음의 차이

5. (물음) 남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반된 사례를 들어 현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②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③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여 진행자의 편견을 지적하고 있다.
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통념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공부'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자전거를 쓰러뜨리지 않고 잘 타려면 기울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균형을 잡되,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야만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원리를 아는 것보다 직접 타 보면서 연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때 만약 자전거를 처음 배운다면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뒤에서 잡아주다가 타는 사람도 모르게 살며시 놓아주게 되면 타는 사람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균형을 잡고 자전거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자전거로 더 멀리 가려면 튼튼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① 공부를 잘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②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
③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④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부하려면 건강을 잘 돌봐야 한다.
⑤ 공부가 중단되지 않게 하려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7. 음악 감상 홈페이지에 글을 쓴다고 할 때,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 보 기 >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좋아하는 이유를 드러낼 것
○ 음악가의 개인적 삶과 연관시킬 것

① ○○ 오페라 – 내성적 인물을 너무 강한 음색으로 노래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들어볼 만하다.
② ○○ 가야금 산조 – 가락을 풀어가는 미세한 표현은 활엽수의 잎맥처럼 섬세하여 항상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③ ○○ 가수 2집 –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가장 사랑받는 가수가 되기까지 겪었을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음반이었다.
④ ○○ 민요 – 원래 가락은 유리구슬 같은 맑은 느낌인데 탁한 음색의 판소리 소리꾼이 불러서 잘 어울리지 않는다.
⑤ ○○ 피아노 협주곡 – 젊은 날부터 병과 싸워야 했지만 그녀의 연주는 막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물고기 같아 늘 힘을 북돋워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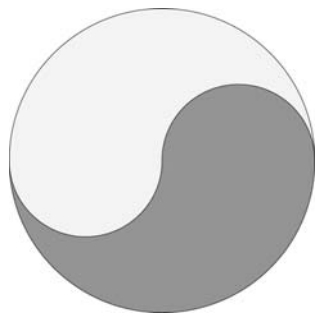
8.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협상'에 대한 글쓰기 계획을 구상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어떤 사람이 명마라며 왕에게 말을 팔러 왔다. 그 자리에 있던 노련한 신하들이 그 말을 타려고 시도했지만 말이 난폭해 모두 실패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자만은 말이 기수의 그림자를 보고 놀란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말머리를 태양 쪽으로 돌려 말에 올라타는 데 성공했다. 이때가 알렉산더 대왕이 명마 부케팔로스의 주인이 된 순간이었다.

(나) 태극



(가)		(나)
① 말이 난폭했던 이유가 그림자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말을 탈 수 있었다.	자료 해석	② 한쪽으로 치우친 모양의 두 도형이 하나의 원을 이루며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다.
↓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의미 추출	③ 상대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		
④ 외교적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 입장을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다.	적용 대상 모색	⑤ 노사협상을 할 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상생할 수 있다.
↓		
주제 설정		

9.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개요를 작성한 뒤, <보기>의 자료를 새로 접하였다. 자료를 참고하면서 개요를 수정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Ⅰ. 우주 산업의 과학적 중요성
Ⅱ.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실태
  1. 낮은 기술 수준
  2. 우주 산업에 대한 비용 증가
Ⅲ. 우리나라 우주 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
  1. 우주 산업 기술의 높은 외국 의존도
  2. 선진 우주 산업 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미흡
Ⅳ.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발전 방안
  1. 우주 산업 기술의 자립을 위한 투자 확대
  2. 국제 협력을 통한 핵심 우주 산업 기술 확보
Ⅴ. 우주 산업의 의미

< 보 기 >

오늘날 미국의 우주 산업은 매년 평균적으로 세계 우주 산업 매출의 40% 이상을 유지하며 400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결과를 이끈 50만 명의 정예 우주 과학자의 존재는 미국이 국가적으로 추진한 우주 개발 프로그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세계 우주 산업 시장 규모는 연 평균 10% 이상 지속적 신장이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우주 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을 4,5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① 'Ⅰ'을 '우주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어.
② 'Ⅱ'의 하위 항목으로 '우주 개발 계획의 부재'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③ 'Ⅲ'의 하위 항목으로 '우주 개발에 필요한 인력 부족'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④ 'Ⅳ'의 하위 항목으로 '우주 과학자를 증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⑤ 'Ⅴ'를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 촉구'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10. <보기>의 내용을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터넷의 이용으로 각종 저작물의 합성, 복사, 배포 등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런 행위는 저자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려 문화적 성과물을 ㉠ 감소하므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저작권 보호가, 이미 높은 문화적 성과물과 많은 정보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강력한 정보와 문화의 ㉢ 주도자는 되게 하는 반면, 그것이 정보화 사회의 약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정보와 문화의 주변인으로 ㉣ 급락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 저작권의 공유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 결국 저작권 보호는 인간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도 하지만, 지적 창조의 결과물을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하는 단점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① ㉠은 주술 관계를 고려하여 '감소시키므로'로 고친다.
② ㉡은 앞뒤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런데'로 수정한다.
③ ㉢은 조사의 쓰임이 잘못 되었으므로 '주도자로서'로 고친다.
④ ㉣은 문맥상 적절한 어휘가 아니므로 '전락'으로 바꾼다.
⑤ ㉤은 글의 흐름상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11. '오르다'의 어휘를 학습하면서 다음의 도표를 만들어 보았다. (A) ~ (C)에 들어갈 어휘와 문장이 적절하게 배열된 것은?

	예문		반의어
오르다	새해 아침에 한라산에 올랐다.	↔	(A)
	(B)	↔	내리다
	열이 올라 해열제를 먹었다.	↔	(C)

	(A)	(B)	(C)
①	내려가다	결국은 자동차에 오르고 말았다.	떨어지다
②	떨어지다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내려가다
③	내리다	새로운 단어가 사전에 올랐다.	내려가다
④	내려가다	모처럼 저녁상에 갈비가 올랐다.	떨어지다
⑤	떨어지다	기름때가 올라 지워지지 않았다.	내리다

12.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1 >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며, 이러한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불규칙 활용에는 ⓐ 어간이 바뀌는 것, ⓑ 어미가 바뀌는 것, ⓒ 어간과 어미 모두가 바뀌는 것이 있다.

< 보 기 2 >

ㄱ. 묻다[問] : 묻- + -어 → 물어
ㄴ. 이르다[至] : 이르- + -어 → 이르러
ㄷ. 모르다 : 모르- + -아 → 몰라
ㄹ. 파랗다 : 파랗- + -아 → 파래
ㅁ. 휘젓다 : 휘젓- + -어 → 휘저어

① ㄱ은 '묻-'이 '물-'로 변하였으므로 ⓐ에 해당된다.
② ㄴ은 '-어'가 '-러'로 변하였으므로 ⓑ에 해당된다.
③ ㄷ은 'ㅡ'가 탈락하고 'ㄹ'이 덧생겼으므로 ⓑ에 해당된다.
④ ㄹ은 'ㅎ'이 탈락하고 'ㅏ'가 'ㅐ'로 바뀌었으므로 ⓒ에 해당된다.
⑤ ㅁ은 'ㅅ'이 탈락하였으므로 ⓐ에 해당된다.

[13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닷가에 매어둔
㉠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머얼리 노를 저어 나가서
헤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 김종삼, 「어부」 -

(나)
황혼이 짙어지는 길모금에서
하루종일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소리,

발자취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던가요.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오래 마음 깊은 속에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를
하나, 둘 제고장으로 돌려보내면

거리모퉁이 어둠속으로
소리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흰 그림자들
연연히 사랑하던 ㉡ 흰 그림자들,

내 모든 것을 돌려 보낸뒤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황혼처럼 물드는 내방으로 돌아오면
[A]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처럼
하루종일 시름없이 풀포기나 뜯자.

- 윤동주, 「흰 그림자」 -

(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ᄃᆞ래랑 먹고 청산애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링공 더링공 ᄒᆞ야 나즈란 디내와숀뎌.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ᄯᅩ 엇디 호리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어듸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믜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ᄅᆞ래 살어리랏다.
ᄂᆞᄆᆞ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ᄅᆞ래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에졍지 가다가 드로라.
사ᄉᆞ미 짒대에 올아셔 히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가다니 ᄇᆡ브른 도긔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ᄆᆡ와 잡ᄉᆞ와니 내 엇디 ᄒᆞ리잇고.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

13.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삶에 대한 고뇌가 나타나 있다.
②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이 나타나 있다.
③ 현실을 초월하려는 신념이 나타나 있다.
④ 자연으로 도피하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⑤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14.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과 달리 회한의 대상이다.
② ㉠에는 ㉡과 달리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③ ㉡에는 ㉠과 달리 역설적 표현이 쓰였다.
④ ㉠, ㉡에는 모두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⑤ ㉠, ㉡은 모두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된 시어이다.

15. (나), (다)에 나타난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고백적인 어조로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수미상관의 기법으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 여음을 통해 노래로서의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
④ 같은 구절을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⑤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6.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할 때, 장면을 설정한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설정 장면	장면 설정 의도
바닷가에 배가 묶여 있는 장면	○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을 보여 줌 … ㉠
배가 출렁거리다 풍랑에 뒤집히는 장면	○ 바다가 실제적인 고난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
물고기를 가득 실은 배를 상상하는 장면	○ 희망을 갖고 살면서 기쁨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 줌 …… ㉢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중얼거리는 장면	○ 세속에서 벗어나 인생을 달관한 모습을 보여 줌 …… ㉣
화자가 미소 짓고 있는 장면	○ 삶의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줌 ……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A]와 <보기>의 화자가 같다고 할 때, [A]를 <보기>와 관련지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 윤동주, 「십자가」에서 –

① '내 모든 것'은 '피'를 흘리려면 버려야 할 대상이겠군.
② '뒷골목'은 '모가지를 드리우고' 삶을 반성하는 공간이겠군.
③ '황혼'은 '어두워가는 하늘'과 함축적 의미가 유사하겠군.
④ '신념'은 '피'를 '흘리겠습니다'에 담긴 의지가 나타난 것이겠군.
⑤ '양'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의 이미지를 담고 있겠군.

18. (다)에서 <보기>의 ⓐ, ⓑ에 해당되는 시어로 짝지어진 것은?

<보 기>

청산별곡은 고려 시대에 궁중의 제례나 연회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상층 문인들에게 향유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노래가 상층 문인들의 내면세계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고려 문인들은 유가적인 ⓐ 현실 집착과 함께 현실 세계의 질서를 부인하고 ⓑ 은둔의 삶을 살고자 하는 도가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	ⓑ
①	청산	믈 아래
②	장글	청산
③	구조개	청산
④	청산	돌
⑤	장글	믈 아래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눈에서 인식한 빛은 망막에서 전기신호로 바뀌어 시신경을 거쳐 뇌의 시각 피질로 전달된다. 이 시각 전달 경로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시력을 잃게 되는데, 그동안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기 위하여 전자공학기술을 이용한 인공시각장치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인공시각장치는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영상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망막이나 시신경, 뇌를 자극하여 사물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전자 장치이다.

인공시각장치는 전기신호를 자극하는 위치에 따라 망막 자극 방식, 시신경 자극 방식, 시각피질 자극 방식으로 나뉜다. 망막 자극 방식은 주로 질병으로 인해 망막이 손상된 환자들에게 유용한 방법으로 영상을 그대로 전달하여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전기 자극을 위하여 다수의 미세전극으로 이루어진 전극 어레이(array)를 이식하는 위치에 따라 다시 망막하부 자극 방식과 망막상부 자극 방식으로 나뉜다. 망막하부 자극 방식은 전극 어레이를 망막의 하부에 이식하는 것으로, 망막의 여러 층 중에서 빛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주는 광수용체를 전극 어레이가 대신하는 방식이다. 망막상부 자극 방식은 망막의 상부에 전극 어레이를 이식하는 것으로, 눈에서 인식한 빛이 망막의 여러 층을 거치면서 신호가 변환되는 과정을 생략하고 시신경으로 전달되는 마지막 부분인 신경절세포를 자극하는 방식이다.

시신경 자극 방식은 망막과 시각피질 사이를 연결시키는 시

카페 생아창(http://cafe.daum.net/3sbios)과 영아창(http://cafe.naver.com/3sbios)은 학습자료 공유문화의 개방화와 선진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경 다발을 옷소매 형태의 전극을 이용하여 자극하는 방식이다. 망막을 이용하는 방식과 달리 시신경이 살아있는 환자들에게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망막 자극 방식에 비해 적용 범위가 넓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신경의 크기가 작아서 전극의 수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시신경의 위치상 환자에게 쉽게 수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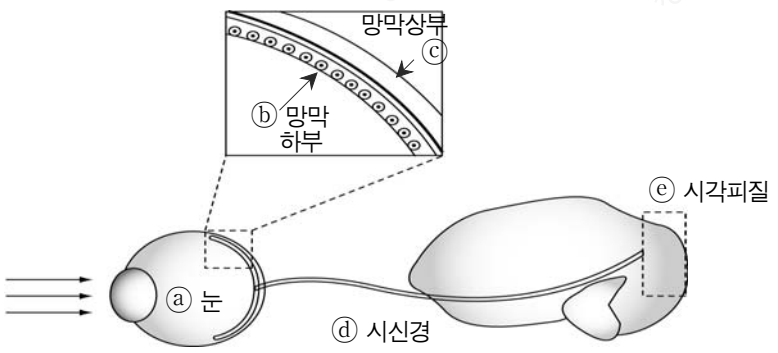
시각피질 자극 방식은 시각 전달 경로의 마지막인 뇌의 시각피질 부위에 전극 어레이를 이식하여 직접 자극하는 방식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시각 경로를 잃게 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인공시각장치가 지향하고 있는 방식이며 적용 범위가 가장 넓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식은 선글라스의 렌즈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이들이 수집한 영상정보를 소형 컴퓨터와 연결하여, 뇌 속에 삽입된 전극을 통해 직접 뇌로 신호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 머지않아 영화에서처럼 선글라스같이 생긴 기계장치를 쓰는 것만으로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공시각장치에 사용되는 전극 어레이의 전극 수는 100개를 넘지 못하고 있어 이미지의 질(해상도)에 한계가 있다. 현재는 섬광처럼 번쩍이는 빛이 여러 개 연결된 정도로 보일 뿐이다. 실제 사물에 가까운 영상을 재현하려면 전극의 수가 1,000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

19. 위 글의 전개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다양한 사례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일반화시키고 있다.
③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④ 추상적인 내용을 일상적인 소재를 들어 구체화하고 있다.
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의 유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20. 위 글을 참고할 때,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 역할은 인공시각장치에서 카메라가 대신한다.
② ⓑ를 자극하는 방식에서는 전극 어레이가 광수용체를 대신한다.
③ ⓒ를 자극하는 방식에는 망막의 여러 층에서 변환된 신호가 이용된다.
④ ⓓ의 역할은 눈에서 인식한 빛을 전기신호의 형태로 ⓔ에 전달하는 것이다.
⑤ ⓔ를 자극하는 방식은 ⓑ나 ⓒ를 자극하는 방식에 비해 적용 범위가 넓다.

21.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3점]

① 시각피질에 손상이 있더라도 망막자극 방식은 유용하겠군.
② 생생한 이미지를 재현하려면 전극의 수를 최소화해야겠군.
③ 시신경 자극 방식을 통해 상실된 시각 경로를 재생할 수 있겠군.
④ 시력 회복의 정도는 전기신호를 자극하는 위치에 따라 다르겠군.
⑤ 시신경의 위치는 시신경 자극 방식을 적용하는 데 제약이 되겠군.

22.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이와 유사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간 끝 받침 'ㄹ'은 'ㄷ, ㅈ, 아' 앞에서 줄지 않는 게 원칙인데, 관용상 'ㄹ'이 줄어진 형태가 굳어져 쓰이는 것은 준 대로 적는다.
예) 멀지 않아 → 머지않아

① 말지 못해 → 마지못해
② 듣자 말자 → 듣자마자
③ 하나 말나 → 하나마나
④ 그렇다 말다 → 그렇다마다
⑤ 가지 말아라 → 가지마라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줄거리] 홍계월은 장사랑의 난에 부모와 헤어져 여공(呂公)에 의해 구해진다. 남장을 하고 이름을 평국으로 바꾼 계월은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무예를 배워 과거에 급제한다. 서달의 반란이 일어나자 평국은 원수가 되어 보국을 중군(中軍)으로 거느리고 출전한다.

이적에 중군장(中軍將) 보국이 아뢰되,
"명일은 소장이 나가 악대의 머리를 베혀 휘하에 올리리다."
원수* 만류하여 왈,
"악대는 범상치 아니 한 자오니 중군*은 물러 있으라."
하니 종시 듣지 아니 하고 간청하거늘 원수 왈,
"중군이 자청하여 공을 세우고자 하거니와 만일 여의치 못하면 군법을 시행하리라."
하니 중군이 왈,
"그리하옵소서."
원수 왈,
"군중(軍中)은 사정(私情)이 없나니 군률(軍律)로 다짐을 두라."
하니 중군이 투구를 벗고 다짐을 써 올리니라.
이튿날 아침에 보국이 갑주를 갖추고 용총마 위에 올라 원수는 친히 북채를 들고,

"만일 위태하거든 쟁을 쳐 퇴군하옵소서."
하고 진문 밖에 나가며 대호 왈,
"어제날은 우리 원수 너희를 용서하고 그저 돌아왔으나 금일은 나로 하여금 너희를 베히라 하시매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으라."
하니 문길이 영을 듣고 정창출마(挺槍出馬)*하여 합전하더니 수합이 못하여 보국의 칼이 빛나며 문길이 머리 말 아래에 내려지는지라 창 끝에 꾀어 들고 대호 왈,
"적장은 애매한 장수만 죽이지 말고 빨리 나와 항복하라."
하니 총서장군 충관이 문길이 죽음을 보고 급히 내달아 싸울새, 삼십여 합에 이르러 충관이 거짓 패하여 본진으로 달아나거늘, 보국이 승세하여 따르더니, ㉠ 적진이 일시에 고함을 지르고 둘러싸니, 보국이 천여 적에 싸였는지라 하릴없이 죽게 되었거늘, 수기(手旗)를 높이 들고 원수를 향하여 탄식하더니 이때 원수 중군의 급함을 보고 북채를 던지고 준총마를 급히 몰아 크게 웨여 왈,
"적장은 나의 중군을 해치 말라."
하고 수다한 중군(衆軍)에 좌충우돌하며 고함을 지르고 헤쳐 들어가니 적진 장졸이 물결 헤여지듯 하는지라 원수 보국을 옆에 세고 적장 오십여 명을 한 칼로 베히고 만군 중에 횡행하며 서달이 악대를 돌아보아 왈,
"평국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금일 보건대 수십도 넘는가 하노라."
악대 대왈,
"대왕은 근심치 마옵소서."
서달이 왈,
"뉘 능히 당하리오. 죽은 수를 이로 측량치 못하리로다."
이적에 원수 본진으로 돌아와서 장대에 높이 앉아 보국을 잡아들이라 호령이 추상같거늘, 무사 넋을 잃고 중군을 잡아 장대 앞에 꿀리니 원수 대질(大叱) 왈,
"중군은 들어라. 내 만류하되, 자원하여 다짐두고 출전하더니 적장의 꾀에 빠져 대국에 수치함을 끼치니, 내 구(救)치 아니하랴다가 더러운 도적의 손에 아니 죽이고 법으로 내가 죽여 제장을 호칙코자 하여 구함이니 죽기를 설워 말라."
하며 무사를 호령하여 원문 밖에 내여 베히라 하니 제장(諸將)이 일시에 복지(伏地)하여 왈,
ⓐ "중군의 죄는 군법시행이 마땅하오나 용력을 다하여 적장 삼십여 원을 버히고 의기양양하여 적진을 경히 여기다가 패를 보았사오니 한번 승패는 일시상사(一時常事)라, 복원(伏願) 대원수는 용서하옵소서."
하며, 일시에 고두사죄(叩頭謝罪)*하니 원수 이윽히 생각하다가 속으로 웃고 왈,
"그대를 베혀 제장을 본받게 하자 하였더니 제장의 낯을 보아 용서하거니와 차후는 그리 말라."
하며 우시니 보국이 백배사례하고 물러나니라.

* 원수(元帥) : 군대의 총사령관.
* 중군(中軍) : 군대의 중앙 부대 또는 그 지휘관.
* 정창출마(挺槍出馬) : 창을 빼들고 말을 달려 나가다.
* 고두사죄(叩頭謝罪) : 머리를 땅에 찧으며 용서를 구하다.

– 작자 미상, 「홍계월전」 –

2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주인공의 비범한 면모가 드러나 있다.
②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③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⑤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홍계월전>에서 계월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한다. 첫째, 영웅으로서 나라에 공을 세워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가문의 영화를 이룬다. 둘째, 여성으로서 남성보다 우위에 섬으로써 남존여비의 봉건적 관념을 거부한다.

① 계월의 질책과 용서는 여주인공의 우위를 강조한다.
② 계월은 보국에 대한 권위를 이용해 가문의 영화를 이룬다.
③ 계월의 활약은 봉건시대 여성들의 욕구를 대리만족시킨다.
④ 계월은 뛰어난 능력을 통해서 남존여비의 관념을 극복한다.
⑤ 계월이 전쟁에서 세운 공은 사회적 지위 상승을 이루게 한다.

25. ㉠의 '보국'이 처한 상황에 어울리는 것은?
① 사면초가(四面楚歌)
② 전화위복(轉禍爲福)
③ 설상가상(雪上加霜)
④ 와신상담(臥薪嘗膽)
⑤ 유비무환(有備無患)

26. ⓐ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처음 약속대로 바다에 가야 하는데 날씨가 쌀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 가고 싶어 하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라도 바다에 가는 것은 어떨까.
② 늦게 온 영수가 짐을 다 들어야 하지만 어제도 혼자 무거운 짐을 들었었고 누구나 한번쯤은 늦을 수도 있는 일이니, 오늘은 각자 나눠서 짐을 옮기도록 하자.
③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은 처음 한두 번은 주위 사람들이 주어 버리기도 하므로 용서할 수 있지만, 만약 그런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크게 혼이 나야 될 거야.
④ 거리의 꽃을 심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 비록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도 하지만 일상에 피로해진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라도 작게나마 웃을 수 있게 해주니까.
⑤ 영희야, 우산을 가져가거라.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은 아니지만 지금은 장마철이고, 게다가 넌 지금 감기 기운마저 있지 않니.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꼭 가지고 가거라.

[27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무런 조사도 가지지 않은 명사구를 '무조사 명사구'라 하고, 그것을 줄여 '무조사구'라 한다. 무조사구가 되려면 명사구가 아무런 조사를 가지지 않아야 하고, 격조사를 가지는 구와 대립을 이루어야 한다.

㈎ 철수가 그 학교에 간다.
㈏ 철수가 그 학교ø* 간다.
㈐ 우리의 희망 / 우리의 희망인 김 선생님이 오신다.

무조사구의 조건을 위 ㈏에 적용하면, '그 학교'는 '무조사구'이다. '그 학교'에는 아무런 조사도 없고, ㈎의 '그 학교에'와 대립을 이룬다. ㈐에서 '우리의 희망'과 '김 선생님'은 흔히 동격 관계를 이룬다. 그것이 '인'을 가지는 것으로 볼 경우, '인'은 서술격조사 '-이다'의 관형사형이므로, 조사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무조사구에 대한 이전 논의는 대체로 온전한 격조사구에서 격조사가 생략되는 것으로 보고, 생략의 조건을 명시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 이러한 접근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내 주위에서 너처럼 말하는 애ø / 애가 첨이다.', '그는 꿀ø/꿀을 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다.'를 생략설로 분석하면, 앞 예문의 '애가'는 '이/가'가 생략되어 '애'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애ø"는 언제든지 '애가'와 같이 복원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애가'는 거의 쓸 수 없다. 뒤의 예문은 격언이나 속담의 예로, '꿀'을 '꿀을'과 같이 복원해서는 원래의 뜻을 거의 다 잃게 된다. 격조사구와 무조사구의 표현 가치 혹은 기능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기 고유한 표현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전문기관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어체 담화에서 무조사구 사용은 5.6%, 구어체 담화에서 무조사구 사용은 약 47.8%로 나타났다. 문어체에서보다 구어체에서 무조사구가 무려 8배를 넘게 사용된 결과를 보였다. 구어체 담화는 화자와 청자가 일정한 시공간적 배경을 공유하고, 비격식적이고 화자와 청자가 서로의 의식 속에서 명확하게 부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화되는 특징을 지닌다. 구어체 담화의 특성이 무조사구의 사용이고, 이와 유관한 구어체 담화의 특징이 활성 상태(이미 인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무조사구의 출현은 활성 상태와 밀접히 관련된다.

그러나 무조사구는 '옛날 옛날에 한 나무꾼이 서울에 살았습니다.'와 같은 담화 도입문에는 쓰일 수 없다. 즉 담화에 처음 도입되는 비활성적 상태에서는 무조사구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명사가, '김 씨같이 점잖은 사람{이, ø} 설마 그런 짓을 했겠어요?'와 같이 관형 성분을 많이 가질수록 무조사구로 쓰이기 어렵다. 이는 수식 요소가 길어지는 것은 친숙성과 관련 있다는 것을 뜻한다. 친숙하지 않다는 것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말인데, 수식 성분의 길이가 활성화 정도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지는 않지만, 긴 수식은 흔히 비활성적 대상과 관련된다.

이와 같이 무조사구를 그 조건과 활성 상태에 입각해 논의하면 그간 해석이 어려웠던 특이한 예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ø : '조사 없음'을 뜻하는 표시.

2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문어체보다 구어체에 무조사구가 더 많이 나타난다.
② 담화가 시작되는 부분에는 무조사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친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조사구의 출현 빈도가 낮다.
④ 속담과 격언에 나타나는 무조사구는 보조사가 생략된 경우이다.
⑤ 생략설 관점에서는 격조사의 사용 유무가 의미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본다.

28.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격조사가 생략된 경우는 복원의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② 격조사가 쓰일 때와 쓰이지 않을 때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③ 무조사구는 비격식적인 발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간과하고 있다.
④ 격언이나 속담은 특수한 발화 상황에 사용되므로 무조사구의 용례로 볼 수 없다.
⑤ 구어체 담화는 화자와 청자가 일정한 시공간적 배경을 공유하므로 문어체 담화와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없다.

29.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ㄱ. 철수가 누구 좋아하니?	ㄱ^1. 철수가 누구를 좋아하니?
ㄴ. 팔 아프네.	ㄴ^1. 팔이 아프네.
ㄷ. 영철아, 택시 온다.	ㄷ^1. 영철아, 버스가 온다.

① ㄱ의 '누구'는 ㄱ^{1}의 '누구를'보다 활성 상태가 높은 발화이다.
② 오랫동안 팔이 아플 경우에는 활성 상태가 낮으므로 ㄴ과 같이 발화한다.
③ 갑자기 팔이 아플 경우에는 활성 상태가 높으므로 ㄴ^{1}과 같이 말한다.
④ ㄷ의 '택시'는 활성 상태가 낮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발화이다.
⑤ 택시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ㄷ^{1}과 같이 말했다면 활성 상태가 높다는 것을 말한다.

[30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몰(W. Baumol)과 보웬(W. Bowen)은 <공연 예술의 딜레마>에서 공연 예술 산업에서의 생산성과 비용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것은 공연 예술 분야가 다른 산업 부문과 달리 생산성은 향상하지 않고 비용만 체증하여 결국은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성이 정체된 산업에서 비용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 '보몰의 비용질병'이라고 부른다.

서비스 산업의 특징을 ⓐ 제조업과 비교해 보면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난 한 세기에 걸쳐서 제조업 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은 거의 눈부실 정도였는데 비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은 미미했다. 이러한 차이는 과학 지식의 진보와 함께 기술의 발전이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해 왔기 때문이다. 즉, 자본과 기술의 축적이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 온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부문은 자본의 축적이나 기술의 진보가 급격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적자를 막을 수 없게 되자 서비스 부문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했다. 즉, 가격 상승이 없다면 서비스 부문은 적자가 쌓이고 결국은 생산(서비스 제공)이 감소하여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수요가 더욱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부문은 이런 딜레마가 해결될 수 있었다. ⓑ 이발 서비스가 바로 그런 사례인데, 이 서비스는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 고객 수는 감소하더라도 이발은 조선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서비스 산업이라도 ⓒ 공연 예술 상품은 임금의 상승에 의한 생산비의 증가가 있더라도 비용의 증가를 곧바로 공연 입장권에 반영하여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공연 예술 상품은 필수재가 아니라서 가격의 상승이 관객들의 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연 예술은 의료나 주택처럼 반드시 소비를 해야 하는 재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재화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치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의 상승은 소비를 급격히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공연 예술 단체가 목표로 하는 많은 관람객에게 보여주려는 의도에 반하게 된다. 때문에 가격 상승은 예술 관람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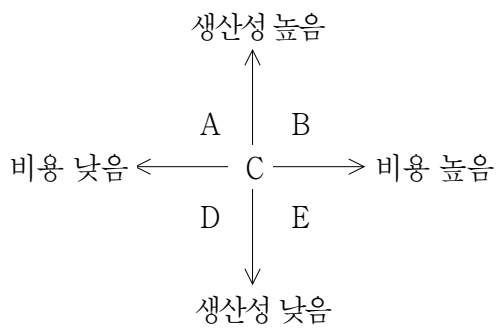
보몰과 보웬의 주장으로 시작된 공연 예술에서의 경제적 비용 문제는 타당성 있는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나서서 예술을 지원할 것을 주장했고, 이후 각국에서는 이들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예술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30.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① 공연 예술이 필수재가 되는 근거
② 공연 예술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
③ 무대 설비 기술 수준과 관객 증감의 관계
④ 공연 예술의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⑤ 공연장 규모가 공연 예술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31. <보기>의 A ~ E 중, ㉠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 보 기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는 자본과 기술의 축적이 생산성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한다.
② ⓐ, ⓑ에서는 비용 상승이 가격 상승을 유도하지 않는다.
③ ⓑ는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부문이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가 확보된다.
④ ⓒ는 가격 상승이 소비를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
⑤ ⓑ와 ⓒ는 ⓐ에 비해 생산성 향상이 미미하다.

33. 막을 과 관련하여 '막다'가 쓰인 다양한 예문을 찾아보았다. 각 예문에 쓰인 '막다'의 유의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문	유의어
①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다.	통제(統制)하다
②	친구들의 싸움을 막느라고 무척 힘들었다.	제지(制止)하다
③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호의라면 막지 않겠다.	저지(沮止)하다
④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운동이 벌어졌다.	방지(防止)하다
⑤	상대편의 이번 공격만 제대로 막으면 이긴다.	방어(防禦)하다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때 : 6・25 직후
곳 : 서울 번화가에 위치한 최 노인의 낡은 기와집

이때 ㉠경수가 힘없이 등장. ㉡발걸음이 약간 휘청거리는 게 아마 술에 취한 듯하다. 어머니와 경운은 각각 반가움과 동정으로 맞아들인다.

어머니 경수 오니?

경수 말없이 마루 끝에 가 주저앉아서 후주르한 ㉢윗저고리를 벗는다.

경 운 오빠 아침은?
경 수 먹었다.
어머니 어디서?
경 수 친구 집에서 자고 아침 해장까지 얻어먹었죠. (그의 태도는 어딘지 차고 쌀쌀하며 자포자기적이다.)
경 운 (일부러 농조로) 서울 인심은 아니군요?
어머니 (㉣상을 찌푸리며) 술 좀 삼가해라. 제 몸을 생각해야지!
경 수 생각 끝에 마신 걸요. 헛허……
어머니 원 애두…… 참. 거 영등포 어느 공장에서 오란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었지?
경 수 기다리라나요?
어머니 (실망하며) 그래……
경 수 (혼자소리로) 밤낮 기다리라지! 육실헐! 죽을 때까지 제깟 놈 말만 기다리고 살으란 말인가?
어머니 그렇지만 기다리라면 진득이 기다려볼 수밖에 없지……
경 운 요즘 취직이 그렇게 쉽게 되나요.
경 수 그래 네 말대로야! 누구나 하는 소리가 그렇지! 친구고 선배고 겉으로는 아주 염려한다는 표정으로 하는 소리가 매양 그렇지! 제길……
경 운 (금시 울음이 터지려는 표정으로) 오빠, 전 결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전……
경 수 (㉤허튼 웃음을 지으며) 그래 너만은 내 귀여운 동생만은 아니지! 도대체 실업자도 많지만 자기 직업에 대해서 너무 떨고 매어달리는 사람이 더 많은가 봐요.
어머니 그게 무슨 얘기니?
경 수 옛날엔 싫으면 직업을 바꾼다던가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겨가는 이동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단 말예요.
어머니 그래……
경 수 한번 직장을 붙들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어달리니 일자리가 빌 턱이 있겠어요. 못난 자식들!
어머니 난 또 무슨 얘기라구 흐……
경 수 그렇게들 직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색하고 공포증까지 품으며 살고 있으니 어디 우리 같은 놈이 처신이나 하게 되었어요.
경 운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살 도리가 없으니까요.
경 수 싱거운 친구들! 싫으면서도 싫다는 얘기 하나 못하고 울면서 겨자 먹기로 직업에 매달려서 사니 생전 가야 우리 몫이 나긴 글렀다. 이 말씀이죠!
어머니 그렇지만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은 좀 봐 줘야지……
경 수 (냉소를 뱉으며) 그걸 안다면 세상이 이 꼴이겠어요? 모두가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형님이요, 아저씨지 볼 장 다 보면 지나가는 똥개 취급이라니까요…… 핫하…… 요컨대는 취직에도 먹자판이지! 밑천 안 넣고는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또 취직만 되면 그 본전에다 복리까지 가산해서 주어 잡수기가 일쑤 아니에요. 그러나 내겐 그 돈도 없어! 돈!
어머니 아무리 세상이 막 되었기로 그래 인정도 의리도 없단 말이냐?
경 수 인정이요? 에미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애비를 죽이는 판국에 인정이요? 흥?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아먹는 격이죠! 내가 죽어야지! 죽는 것이 가장 편한 길이야! (하며 마룻바닥에 드러눕는다.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내려다본다.)

– 차범석, 「불모지」 –

34.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경수는 경운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② 경수는 어머니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있다
③ 경운은 경수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④ 어머니는 경수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다.
⑤ 어머니는 경수와 경운의 언쟁을 중재하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1950년대의 암울한 전후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가는 폐허와도 같은 전후 현실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전쟁이 우리의 과거나 전통을 송두리째 파괴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또한 전후 소설에 흔히 나타나는 제대 군인을 등장시켜 제대 이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괴감에 빠진 인물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① 어머니의 대사에는 암울한 전후 현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군.
② 낡은 기와집은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겠군.
③ 경수의 대사를 통해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파괴된 당대 현실을 알 수 있군.
④ 작품에 등장하는 제대 군인은 전후 우리 사회의 갈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군.
⑤ 등장인물들에게서 당시 절망적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무력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군.

36. ㉠ ~ ㉤을 <보기>의 내용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 기 >

배우의 연기에서 동태적인 배열이란 신체의 모든 연기적 움직임을 말하는데,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제스처(gesture)는 손발 · 상반신 · 머리 · 팔 · 다리의 움직임이고, ⓑ 얼굴 표정(facial expression)은 얼굴의 표현적 움직임이다. ⓒ 동작(movement)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몸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을, ⓓ 몸의 자세(bodily attitude)는 연기자가 어떤 상황이나 대상과의 관계에서 드러내는 신체 각 부분의 관계적 배치를 말한다. ⓔ 스테이지 비즈니스(stage business)는 무대 위에서의 연극적 효과를 위한 일상적 행동(차 마시기 등)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토양은 박테리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서식처이다. 박테리아의 모양은 구형에서 막대모양, 나사모양 등 매우 다양한데, 일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물로 씻겨나가거나 다른 움직이는 생물에 묻어서 움직인다. 지표면의 흙 1그램에는 흙의 산성도와 유기물 함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만~1,000만 개의 박테리아 세포가 포함되어 있다.

농업학자들은 토양 미생물들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 기간과 재원의 대부분을 투입하는 연구 대상은 뿌리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종류인 리조비아케아이과에 속하는 박테리아들이다. 이들 가운데 리조븀(근류 박테리아)에 속하는 박테리아들은 사실 토양에 사는 게 아니라 식물의 뿌리 속으로 침투해 뿌리가 작은 혹처럼 부풀어 오르게 만든 뒤 그 속에서 생활한다. 뿌리에 침투해 혹을 만든다는 것은 식물에 심각한 위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 이 박테리아는 땅속 뿌리 주변에 있는 흙 사이 공간의 공기에서 질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 또 이렇게 흡수한 질소를 ㉡ 식물에게 공급해 준다. 이런 박테리아를 받아들여 살 수 있는 식물들은 천연 비료 공장을 몸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셈인 것이다.

그러나 질소 고정 능력이 있는 박테리아를 수용할 수 있는 식물은 적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진 것은 콩과 식물인데, 이 식물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농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중요한 식량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완두콩류와 일반 콩류를 공급해 준다. 그러나 쌀과 밀, 옥수수, 감자 같은 주식용 작물들은 질소 고정 박테리아를 받아들여 살 수 없는 식물들이다. 그래서 세계의 생명공학자들은 박테리아와 뿌리의 관계에 관여하는 모든 분자들을 신중히 조사하고 있다. 이들 박테리아가 아주 생소한 뿌리에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작물들이 질소 고정 박테리아를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식물 뿌리에 침투해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의 종류와 수가 매우 많다는 점을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농작물 품종들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접해 본 적이 없는 생소한 박테리아를 뿌리에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인간은 세계의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방법을 이용하며 일부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세계적으로 연간 질소 비료 사용량은 약 7,000만 톤에 이르며 가격은 톤당 150달러 정도이다. 따라서 질소 고정 박테리아와 식물의 결합이라는 기획이 어떤 식으로든 성공을 거둔다면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7.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질소 고정 박테리아의 번식 방법
② 질소 고정 박테리아의 특성과 활용 가치
③ 질소 고정 박테리아의 종류와 서식 조건
④ 토양 박테리아의 서식 환경과 성장 과정
⑤ 토양 박테리아가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

38. ㉠과 ㉡의 관계가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말버섯은 참나무 밑둥치에 살며 참나무가 공급하는 영양분을 섭취한다.
② 해오라기는 물소 등을 타고 다니며 등에 있는 진딧물이나 여러 곤충들을 잡아먹는다.
③ 흰개미의 소화기관에 서식하는 원생동물은 흰개미가 섭취한 목질을 분해하여 흰개미가 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무화과 꽃은 꽃받침 속에 있어 보이지 않는데 무화과말벌은 안쪽에 있는 꽃이 수정하도록 한 후 그 속에 알을 낳는다.
⑤ 흰동가리는 말미잘 속에 숨어 있으면서 적을 피하거나 먹이를 구하고, 말미잘의 병든 촉수를 자르고 찌꺼기를 청소해 준다.

39. 위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농작물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농작물이 질소 고정 박테리아를 수월하게 수용하도록 하는 과학 기술을 개발한다.
ㄴ. 농작물이 서식하는 토양에 미생물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과학기술을 확보한다.
ㄷ. 유해한 박테리아가 침투했을 때 농작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방안을 확보한다.
ㄹ. 농작물에 질소를 고정하는 박테리아가 유해한 박테리아와 공존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을 개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0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주머니는 원래 일정 말기에 황해도 안악 마을의 한 농촌 마을에서 갓 스물에 이곳으로 출가해 왔는데, 예의 흰철쭉은 그녀가 시집을 오기 전에는 친정집 남새밭 가에 서 있었던 것이랬다. 그것을 어느 봄 친정어머니가 모처럼 딸네 집 먼 나들이를 오면서 고향 부모 정물로 파다 심어주고 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그것을 심고 간 그해 여름 바로 8·15 해방을 맞게 됐고, 이어 서로 간에 소식이나마 오갈 길이 끊기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 철쭉이라도 해마다 흰 꽃을 피워주어 아주머니는 그것으로 이 30여 년을 고향 식구들 대하듯 마음을 달래 왔노라고 하였다. 한데 어느 해부턴지 인근 땅값이 느닷없이 두 곱 세 곱으로 치솟는 바람에, 아주머니네를 포함한 온 동네가 마치 횡재라도 만난 듯 다투어 집과 땅을 팔고 너나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떠나갔다는 것이었다.

"그 몹쓸 ㉠ 땅값 바람에 멋모르고 모두 눈이 뒤집힌 게라요. 땅값에 눈이 아주 뒤집히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쉽게 제 살던 집을 팔고 떠날 수 있었겠소."

아주머니는 뒤늦게 집을 팔고 떠난 것이 후회스러운 듯 아쉬운 한숨까지 지었다. 그래 아내가, 집을 팔더라도 그 철쭉이나 따로 파 옮겨다 심지 그랬느냐고, 짐짓 한마딜 어긋나게 묻고 들자, 아주머니는 다시 북쪽 말 억양이 역력한 소리로,

"글쎄, 그땐 그럴 경황도 없었다우. 그땐 어찌 그리 쫓기듯이 거래를 서둘러들 대던지 나무커녕 사람마저 깃들 곳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터부터 비켜나가 줘야 했을 형편이었으니까유."

변명이라도 하듯 한숨 섞어 말하고는 새삼 꽃 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흰철쭉이 거기 남아 있게 된 것은 어쨌거나 그런 저런 사연으로 해서였다. 그런데 이듬해 봄이 되어서였다. 아주머니네는 그때 이미 집값으로 받은 돈을 이 일 저 일로 거의 다 축내버리고, 종내는 아들 내외와 성남 변두리에 셋방 한 칸을 얻어 살면서 인근 산간으로 나물뜯이를 나다니고 있었는데, 하룻밤은 느닷없이 피곤한 잠결에 살던 집 철쭉꽃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A] "꿈에서도 그토록 꽃빛이 희고 탐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집터도 물론 내가 살아오던 옛날 집이었구…… 꿈을 깨고 나니 꽃이 필 철이더구만유. 그래 아무래도 무심할 수가 없어 나물 장살 핑계 삼아 꽃을 보러 왔었지유. 찾아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담 너머로 꽃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구만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을 사 들어오고 나서 바로 다음해부터의 일인 셈이었다. 첫해에는 아내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가 아주머니가 아예 집 앞 길거리에 전자리를 펴고 앉은 그해에 와서야 분명한 기미를 알아차린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날마다 그렇게 나물바구니를 이고 와서 하루 종일 담 위의 꽃을 보다 가곤 한 것이었다. 꽃이 시들어 떨어질 때까지 내리 3년을 계속해 온 일이랬다.

그해에도 아주머니는 마찬가지였다. 그해에도 그녀는 5월로 접어들며 몇 번씩이나 철쭉 꿈을 꾸었고 그만큼 혼자서 개화를 기다려왔다 하였다. 그리고 다시 집 앞을 찾아와 담 위로 흰 꽃이 흐드러진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는 것이었다.

(중략)

[B] 그해가 가고 이듬해 봄이 되었다. 흰철쭉은 그 봄도 여느 해처럼 그 탐스런 흰 꽃을 만발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꽃이 피고 나서도 전날처럼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우리집 대문을 들어서는 일도 없었고 집 앞 길거리 건너편에다 나물거리 전자리를 펴고 앉는 일도 없었다. 그녀가 찾아주지 않은 철쭉꽃마저 조화처럼 적막하고 무심스럽기만 하였다. 할머니는 끝내 그렇게 소식이 감감한 채 흰철쭉만 저 ㉡ 혼자 시들어갔다. 지는 꽃은 내년에 다시 와보면 될 일이건만…… 그 봄을 약속하고 돌아간 할머니는 자신의 약속을 못 지키고 만 것이었다.

이제는 사정이 거의 명백해진 셈이었다. ㉢ 할머니에게 불행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 굳이 말을 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이기도 하였다. 흰철쭉이 계속 꽃을 피우고 있는 한 할머니는 아직도 어디선가 우리와 한 하늘 아래서 기다림을 잃지 않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또다시 이듬해 ㉣ 봄을 기다렸다. 그리고 이윽고 한 번 더 봄이 왔다. 하지만 그도 다 부질없는 일이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할머니의 소식은 여전히 감감한 채 흰 꽃들만 눈부시게 무리 짓고 있었다. 할머니의 그 기나긴 기다림이 세월에 바래져 그렇게 하얗게 피어나듯 누군가의 지친 넋을 위하여 아름다운 소복의 꽃상여를 꾸며놓은 듯.

"저 꽃들은 아직 모르고 있을까요……? 올해도 저렇게 누구를 기다리며 곱게 필까요?"

행여나 행여나 하면서도 할머니의 일을 부러 모른 척 입을 다물고 지내던 아내가 어느 날은 끝내 참지를 못하고 혼잣소리처럼 그렇게 말했다. 할머니에 대해서는 나 역시 물론 아내와 똑같은 심정이었다. 하면서도 나는 아직 아내처럼 막막하지는 않았다. 철쭉나무 가지 위에 날아와 앉아 있는 한 마리의 새 때문이었다. 언제부턴가 꽃나무 가지 위에 이름 모를 ㉤ 새 한 마리가 눈을 감고 깃을 개고 앉아 있었다. 순백의 꽃빛 속에 적막스럽고 애틋한 모습이 어떤 기나긴 기다림의 꿈속에 젖어 있는 것 같았다.

- 이청준, 「흰철쭉」 -

40.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과거와 현재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② 관찰자의 범위 밖에 있는 대상의 행위를 제3자가 전달하고 있다.
③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④ 특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짐을 보여주고 있다.
⑤ 간결한 문장과 생략을 통해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41. 사건 전개상 '흰철쭉'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심인물의 내력을 드러낸다.
② 갈등 구조가 바뀌는 계기가 된다.
③ 혈육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한다.
④ 중심인물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⑤ 중심인물과 서술자가 만나는 계기를 마련한다.

42. [A], [B]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A]와 달리 [B]에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정서 변화가 드러나 있다.
ㄴ. [A]에는 중심인물의 정서가, [B]에는 중심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ㄷ. [A]와 [B]에는 모두 부정 서술어를 통해 서술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이 그려져 있다.
ㄹ. [A]에서 [B]로의 시간 변화를, 동일한 인물에 대한 호칭 변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할머니가 당대의 부정적 사회현상에 휩쓸렸다는 것을 드러낸다.
② ㉡은 할머니에 대한 부부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③ ㉢은 분단 현실로 상처 받은 개인을 상징한다.
④ ㉣은 할머니와 부부의 재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한다.
⑤ ㉤은 할머니의 소망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4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건축은, 건물 앞에서 주의를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심하고 산만해진 상태에서 무심코 온몸으로 익숙해지는 방식을 통해서 수용된다. 일상 속에서 습관을 통해 체득한 건축 체험은 대체되거나 요약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다.

건축과는 달리, 미술이나 조각 등 다른 예술 장르는 일상과 어느 정도 격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박물관, 미술관 같은 전시공간이 건물유형으로 일반화된 18세기 이후의 일이고, 그 전에는 예술 작품을 주로 건축의 일부로서 감상하였을 뿐 전시공간에서 독립적으로 감상하지는 않았다. 공공 전시공간이 탄생하면서 회화와 조각은 비로소 건축과 일상에서 벗어나 공간적으로 격리되었으며, 일상적 목적이 배제된 미적 순수성이라는 독립된 세계를 구축하였다. 공간적 격리와 미적 순수성을 핵심으로 하는 전시공간의 탄생은 근대미학을 출현시킨 배경이었고 이후 체계화된 미학의 흐름은 건축과 일상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예컨대 근대미학의 정수인 칸트의 <판단력비판>에서 미를 판정하는 근거는 '목적 없는 합목적성'인데, 이는 필요성이나 용도를 문제 삼지 않고 미 자체가 목적인 상태를 말한다. 이런 기준에 의하면, 순수한 미—자체로 아름다울 뿐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미—에 비해 실용적인 용도를 충족시키다가 부수적으로 얻은 미는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실용예술도 순수예술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전락하였는데, 이렇게 양자를 견주고 서열화하는 것은 18세기에 갑작스레 제기되어 19세기를 지배한 관점으로, 전적으로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쓰임새에서 멀어질수록 예술 고유의 순수함에는 가까워진다는 생각, 감각적으로 체득되는 물질성을 제거할수록 이상에 가까워진다는 생각은 관념철학과 결합된 낭만주의 미학을 거치면서 터무니없을 정도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반론이 가능하다. 첫째, 실용성과 미학을 대립시키는 구도는 고대 노예제의 흔적을 반영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필요성과 유용성은 노예의 몫이고 아름다움과 자유로움은 시민의 몫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구도는 근대적 가치를 구현하지 못한다. 일상적 용도를 배제한 순수함과 자유로움에 대한 욕망은 일상과 현실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바탕 위에서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미학이 일상적인 지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예술을 통해 일상에 대한 지각을 강화하고 심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건축은 일상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일상을 형성하는 골격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건축의 의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배제한 미적 순수성의 왜곡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건축의 의의는 일상에 깊숙이 참여하는 것에 있다. 인간과 건축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상호 작용은 건축을 통해 일상을 변혁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44.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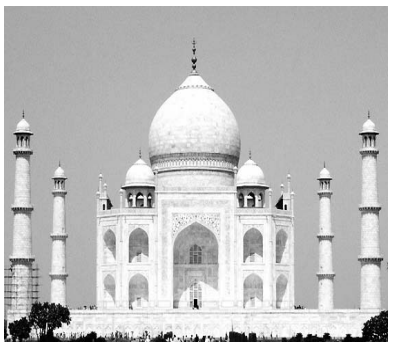
① 근대 미학에서는 건축을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② 18세기 이후에는 조각을 건축의 일부로 감상하였다.
③ 실용예술과 순수예술을 서열화한 것은 근대에 제기되었다.
④ 회화와 조각은 도구성이 약해지면서 일상에서 격리되었다.
⑤ 근대 미학에서는 물질성을 제거할수록 이상에 가까워진다고 보았다.

45.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양 강연을 한다고 할 때, 강연을 홍보할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건축 예술의 아름다움, 미적 순수성을 향하여
② 건축과 정치가 만나다, 예술과 정치의 줄다리기
③ 칸트와 함께 건축을 논하다, 시각 예술의 결정체
④ 근대의 시선으로 건축 읽기, 예술의 모방론을 중심으로
⑤ 근대 미학으로 바라 본 건축 예술,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46. 위 글의 관점에서 <보기>의 글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관광 여행 중 타지마할에 들렀다. 매우 아름답고 예술적인 건축물이었다. 정면에서 바라보니 본 건물과 주변 4개의 탑들이 모두 정교한 짜임새를 갖추고 있었다. 순백색의 아름다운 석조 건물이 순결과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듯했다.

① 제작자의 제작 의도를 잘못 이해했다.
② 형태의 창의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③ 일상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을 감상하였다.
④ 건축물을 독립적인 전시 공간의 작품으로 대하지 않았다.
⑤ 건축물이 가질 수 있는 순수미의 요소를 파악하지 못했다.

〔47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학자(道學者)이지만 유난히 탐구 정신이 강렬했던 율곡 이이(李珥)에게 도학적 수행의 도는 그렇게 간단치 않았다. 수행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든지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는 도학적 신념에 대해 율곡은 회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성인의 인격과 왕도정치의 구현이 현실에서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의 이상주의적 허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했다. 이렇게 그에게는 이미 탐구의 학(學)을 추구하는 실학자의 성격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학자로서 그는 이상주의자였지만 실학자로서 그는 현실주의자였다. 오로지 도학적인 옳고 그름의 판단만을 강조한다면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잃게 된다. 반대로 이익과 손해의 분별만을 생각하는 것도 일을 처리하는 공정성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유연성은 일관된 규칙을 지키기 어려우므로 공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시비(是非)의 판단은 언제나 불변적인 법칙으로만 사회와 삶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유연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율곡에게는 도학적 판단 기준인 '시비'의 분별과 실학적 판단 기준인 '이해(利害)'의 추구 모두 국가의 안녕과 백성의 복리를 위한 것이었다. 결국 율곡 정치 철학의 궁극적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율곡의 정치철학에서 ㉠ 도학주의는 실학주의가 이해관계의 속물주의로 미끄러져서 사회가 이익 사냥을 위한 야만주의에 함몰하는 것을 제어하는 제동 장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달리 그의 실학주의는 사회를 변화·발전시키는 운동 장치로 작용한다. 도학이라는 제동 장치가 없다면 공정성을 상실한 인간들의 행위는 국가의 안녕과 백성의 복리마저 훼손할 수 있다. 그러나 율곡은 자기의 시대가 너무 제동적 도학만을 숭상하기에 그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 발전적 실학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그의 정치 철학은 실학적인 것에 무게 중심이 더 실리고 있었다.

율곡 이이는 도학적 이상의 완전한 구현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은연중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는 역사를 선악(善惡)이 섞여 있는 양가성(兩價性)의 것으로 보고, 현실은 순수한 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수한 악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다고 보았다. 어떤 경우에도 현실과 정치에서 '순수'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는 당쟁의 와중에서 언제나 양시양비주의(兩是兩非主義)로 일관하였다.

현실 정치에서 때로는 양시(兩是), 때로는 양비(兩非)의 논리로써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려는 율곡의 노력에 대하여, 절대적이고 유일한 원리만을 찾던 조야(朝野)의 선비들은 그의 시비가 분명치 않다고 힐난하였다. 그러나 그는 역사 현장에서 '양시'와 '양비'가 다 가능할 수 있다는 애매성의 논리를 굽히지 않았다. 이 점에서 보면 그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사유에서, 도학의 도리를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항상 ㉡ 상황에 따른 최적의 논리를 찾아내어 국가와 백성에게 가장 마땅한 것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7. 율곡의 정치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묶은 것은?

구분	내용	
학자적 측면	도학자	실학자
학문의 방법	ⓐ	탐구
판단의 기준	시비	이해
사회적 역할	제동	ⓑ
학문의 특성	ⓒ	유연성

	ⓐ	ⓑ	ⓒ
①	추구	행위	공정성
②	수행	운동	공정성
③	수행	행위	공정성
④	분별	변화	양가성
⑤	추구	운동	양가성

48. ㉠의 '도학주의'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시장을 독점하려는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② 빨리 승진하기 위해 나와 신념이 다른 사람과 타협한다.
③ 민원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쉼터 등의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④ 자기 수양의 일환으로 게으른 생활 습관을 반성하고 고친다.
⑤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점검한다.

49. ㉡과 관련된 율곡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가난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기는 어렵고, 부유하면서 남들에게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② 공사(公事)에 여가가 있거든 반드시 백성을 편안히 할 방책을 헤아려내어 지성으로 잘 되기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③ 사람들의 위반 행위를 불확실하고 불규칙하게 처벌하는 폐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정부가 세운 법이란 영역으로 도피한다.
④ 세계의 문제는 누가 영원히 옳은가를 아는 데 있지 않고,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누가 유연하고 견고하게 균형을 맞추는가에 있다.
⑤ 어진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간사한 사람을 쫓아내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재상의 직책이다. 그러므로 재상이 당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50. 맞추었던의 뜻과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① 다른 부서와 보조를 맞추었다.
② 그는 아내의 기분을 맞추었다.
③ 시력에 따라 안경을 맞추었다.
④ 사람들과 약속 시간을 맞추었다.
⑤ 주파수를 지역 방송에 맞추었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